

북한 『로동신문』 사설 분석

2020-3 (5월/6월)

이기동 (북한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목 차

1. 사설 목록	1
2. 일반적 특징	2
3. 개별 사설 분석	9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설 목록

순서	일자	제목
1	5. 1	전체 근로자들이여, 영웅적 투쟁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정면돌파전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	5. 7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나가자
3	5. 9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4	5.11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어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5	5.14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6	5.18	당정책 결사관철의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7	5.22	청년들을 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8	5.25	내적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건설 대진군을 다그치자
9	6. 4	정면돌파전에 박차를 가하여 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10	6. 6	소년단원들은 주체조선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주인공들이다
11	6.10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12	6.16	련속공격전으로 자력부강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13	6.1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14	6.22	증산절약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자
15	6.25	조국수호정신은 주체조선의 뉘이며 필승의 무기이다

2

일반적 특징

◆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관련 사설 부재

- 신속한 국경통제 조치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응으로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원래 남북관계 관련 사설이 희소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6.4)로 시작하여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6.16)로 이어진 일련의 대남 강경태도를 감안하면, 최소 1건의 사설이라도 게재하는 것이 합리적
- 특히, 6월은 6.25전쟁 기념일 월간인데다가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남한을 비난하는 대규모 군중동원행사에 활용할 필요성 다대

◆ 5~6월 합산 결과, 총 15건의 사설 중 경제건설을 독려하는 내용의 사설이 약 70%(10건) 차지

- 올해의 반환점이자 정면돌파전 1차년도 결산(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제건설에 중점을 둔 정면돌파전 독려 필요
- 5월 사설들에서는 순천린비료공장 준공(5.1)을 기념하는 내용, 6월 사설들에서는 6월 7일 정치국회의(7기 13차)에서 경제정책 조정 내용 강조

◆ 인민경제선행부문발전노선에서 화학공업우선발전노선으로의 조정 확인

- 4월 11일 정치국회의에서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6월 7일 정치국회의에서 결정

- * 정치국회의(4.11)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성된 대내외환경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 변경할 데 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 토의하였다”
- 당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인민경제선행부문(전력, 금속, 화학, 석탄) 발전노선을 6월 7일 정치국회의에서 화학공업우선발전노선으로 조정
-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 결정한대로 화학공업부문이 먼저 들고 일어나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해나가야 한다. 금속, 석탄,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 (6.16일자)
- * “금속, 석탄, 전력, 철도운수부문 등 유관부문은 원료, 자재, 동력을 화학공업 발전에 우선 보장” (6.10일자)
- 5월 1일자 사설에서 화학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을 “경제발전건설의 쌍기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월 1일까지는 화학공업우선발전노선으로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
- 이 과정에서 인민경제선행부문발전노선을 둘러싼 혼선을 보임으로써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노정
- 5월 1일자 사설에서 인민경제선행부문발전노선은 “명안 중의 명안”으로 자랑했다가 불과 1개월 후인 6월 7일 정치국회의에서 화학공업우선발전노선으로 선회

◆ 4월 11일 정치국회의에서 제기한 경제정책 조정 대상에 주요대상 건설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은 건설 자원과 자재의 부족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선택과 집중 방식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5월 1일 국제근로자절(노동절) 기념사설에서 근로자들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삼지연시 3단계 공사와 평양종합병원 건설만 언급하고 5월 14일자 사설에서 군민대단결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미언급

◆ “인민경제 선행부문 간 상호 연계성 강화” 촉구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핵심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
-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으로 상호 연계성보다는 이윤 중심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팽배

◆ 여러 사설들에서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을 김정은 지도력 강화의 소재로 선전

- ‘자력갱생의 승리’이자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포성’으로 선전함으로써 김정은 지도력 공고화의 호재로 활용
- 김정은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테이프 절단 장면을 연출하고, 국제사회의 김정은 건강이상설 제기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활용

◆ 주요 정치행사인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증대하는 경향

- 4월 11일 정치국회의에서의 수도시민생활보장 해결 지시와 6월 7일 화학공업 우선발전노선 제시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
- 당창건 75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조정

◆ 정면돌파전 사상을 “혁명적 노선”에서 “과학적 투쟁방침”으로 표현

-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결정할 때만 하더라도 정면돌파전을 경제 집중총력노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설정할지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혁명적 노선”으로 표현
- 제재 장기화에 코로나-19 상황이 가중되면서 전략적 노선이나 혁명적 노선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과학적 투쟁방침”으로 툰다운
-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투쟁방침과 방도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으나 불확실한 미래를 고려하여 다양한 담론의 여지를 개방한 것으로 판단

- ◆ **순천린비료공장 완공을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거세찬 분출”로 평가**
 - 비료공장의 민족문제화는 북한의 자체 역량에 의한 공장 건설과 완공이라는 측면과 비료의 대외 의존성 감소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
 - 김정은은 2013년 3월 개최한 경공업대회에서 “수입병은 경공업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주요 경공업제품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경향 시현
 - 북한은 수입병을 없애는 방안의 하나로 상품의 질 제고를 적극 독려

- ◆ **정면돌파전의 주타격방향인 농업부문에서의 다수확 성과를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비롯한 산업부문의 활력소로 설명**
 - 인민경제 선행부문 간 상호 연계성 강화만이 아니라 농업과 산업 사이의 연계성 강화 필요성도 강조

- ◆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치·도덕적 인센티브 강화 시사**
 - 농업 생산성 증대를 당 창건 75주년 계기 당에 바치는 “로력적 선물”이자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의 판단 기준으로 설정
 -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2012년 4월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부담감 작용

- ◆ **대부분의 사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강조**
 - 인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문제를 정치국회의의 첫 의제로 삼은 것과 평양종합 병원 착공을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모범으로 예시

- ◆ **코로나-19 방역사업 동원으로 인한 모내기 노력동원의 차질 우려**
 - 농촌 지원기간 방역사업에서의 사소한 편향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농촌 지원인력을 농사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할 것을 주문
 - 북한은 지난 식수절(3.2) 당시부터 “합리적 노력동원” 필요성 강조

◆ ‘군민대단결’의 중점 변화

-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기능하고 군대의 안보적 역할을 중시하던 2000년대 군민대단결은 인민에 의한 원군 중시
- 지금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정수)로 자리 잡고, 경제건설에서 차지하는 군대의 역할과 기여가 증대하는 추세 속에서 군에 의한 원민에 방점

◆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을 군대의 과제로 제시

- 전쟁역지력 강화 또는 핵무력 강화와 같은 과제가 아닌 육·해·공 철벽 방어와 부단한 전투력 강화와 같은 비교적 수동적 과제 제시
- 경제건설에 방점을 둔 정면돌파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

◆ 주어진 여건 속에서 무조건 과업 완수 압박으로 주민들의 불만 증대 가능성

- 중앙과 상부의 물자조달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노력과 설비, 자재로 무조건 과업 완수 촉구
- 각종 부문, 단위, 그리고 그곳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국가가 정한 양적지표를 달성해야 하고, 자기 생활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적 제고까지 달성해야 하는 삼중고 직면

◆ 청년들의 사상적 해이 현실을 우려하면서 정면돌파전에서 이들의 역할 촉구

- 청년들이 고난의 행군과 시장 활성화의 시대를 겪는 과정에서 사상교양의 침투력이 약한 현실 우려
- 이들의 이러한 약점과 “혁명의 시련을 겪지 않은” 세대적 특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한 고리에 해당한다는 인식 반영

- ◆ 정면돌파전 1차년도 결산까지 촉박한 시간 속에서 물자조달 등 어려운 조건과 방대한 과업의 이중고를 솔직히 토로
 - * “정면돌파전이 심화됨에 따라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더 많은 원료와 자재, 설비를 요구”(5.25일자), “조건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6.4일자), “당창건 75돐까지는 몇 달 남지 않았다. 자립, 자력의 기치높이 용진해나가는 우리 앞에는 의연히 무시할 수 없는 도전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으며 투쟁과업도 방대하다”(6.16일자)

- ◆ 수도(평양) 중심의 국가운영 실태와 평양과 지방 간 차별정책 확인
 - * “수도 평양시민들의 생활향상은 선대수령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정치사업”, “당중앙이 제일 관심하고 걱정하는 수도시민생활문제”(6.10일자)
 - 6월 7일 정치국회의에서 평양시민 생활보장 문제 해결을 두 번째 의제로 토의하고 주택 문제 해결 등 대책 마련키로 결정
 - 평양과 지방 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큰 상황에서 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 문제를 특별히 다룰 정도면 지방의 열악도 유추 가능
 - 정치국회의의 결과를 바라보는 지방주민들의 좌절감과 박탈감 다대 가능성

- ◆ 정면돌파전 개시 6개월 경과시점(중간결산)에서 정면돌파전의 성과 열거
 - 순천린비료공장 준공과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 완공으로 알곡 증산을 위한 토대 마련
 -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 평양종합병원, 단천발전소 건설 중
 - 석탄과 전력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을 언급하였으나 금속부문을 제외한 것은 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문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 김정은 정권의 당사업 체계와 사업방법은 김정일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명한 차이 노정
 - 김정일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을 유일영도체계 10대원칙으로 대체하고 ‘수령’ 표현 삭제
 - 김정일의 군 영도체계 중시와 달리 당 영도체계 재건 등

- ◆ ‘어머니당’ 건설 업적을 김정은에게 부여하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몇 가지 차별성 시현
 - 김정일을 “어머니당 건설자”가 아니라 “어머니당의 경지 개척자”로 묘사
 - ‘어머니당’은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가장 부합하므로 김정은 시대의 트레이드마크로 정착시킬 필요
 - 김정은의 당건설 업적의 대표 사례로 “당회의 정상 소집”을 들고 있어 김정일 시기의 당운영이 비정상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평가
 - “당이 수령을 모시듯 인민을 받들고 있다”고 하여 수령과 인민에 대한 당의 태도를 대칭적으로 인식

3

개별 사설 분석

5월

① 전체 근로자들이여, 영웅적투쟁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정면돌파전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5.1)

- 국제근로자절(노동절) 130주년 기념 사설로 매년 게재
 -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대규모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형성
 - 정면돌파전을 수행하고 있는 올해 사설은 평년보다 근로자들의 분발을 더욱 촉구
- 노동절을 맞이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전·현 수령들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당의 자주성 보장 업적을 선전하면서 근로자들의 역할을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
 - (참된 혁명가)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당과 수령에게 충성 △수령결사옹위와 당 과업 결사관철 △당의 사상과 영도에 무한히 충직
 - “당중앙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이라는 구문이 등장하는 데, 과거 후계자를 의미하던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중앙위원회의 줄임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 △사대와 교조, 패배주의를 척결하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 창조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책동 및 시련과 난관을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승화
 - (열렬한 애국자) △가사보다는 국사, 권리보다는 의무 중시 △사회주의 재부 창조 열망 충만
 - 근로자들의 ‘눈부신 성과’로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와 평양종합병원 건설만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요대상 건설사업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4월 11일 정치국회의에서 조정 필요성을 공개하였으나 내용은 미공개

○ 당창건 75주년을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세 가지 과제 제시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받들기) △김정은은 위대한 스승이며 자애로운 아버지 △천리마운동 시기의 근로자들과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도 노동계급의 따라배우기 (영도자에 대한 절대 믿음) △김정은의 사상과 노선을 유일적 지침이자 생명선으로 받들고 철저히 관철
- (백두산정신 무장 및 정면돌파전에서 혁명적 기개 양양)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정면돌파전의 돌격로 열기 △집단적 혁신과 집단적 경쟁열풍 고조시키기
 - * 농업근로자들은 과학농사열풍과 다수확운동 제고를 통한 농업 증산, 기술자들은 두뇌전과 기술전 맹렬히 전개, 모든 근로자들은 증산절약운동 전개 주문
-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사업 강화) △근로자들의 자력갱생정신 함양을 위한 침입식, 집초식 정치사업 전개 △근로자들의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 고무를 위한 선전 선동역량과 수단 총동원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근로자들의 사업상 애로와 생활상 고충 해결

②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생산적양양을 일으켜나가자(5.7)

○ 5월 1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 기념 사설 성격

- 북한은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을 7기 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천명한 이후 첫 번째 성과로 자부
 - *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포성”
- 김정은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테이프를 절단하는 장면을 노출함으로써 김정은의 건강이상설 불식 계기
 - * 김정은은 4월 11일 정치국 회의 주제 이후 20일 만에 등장

○ 2016년 5월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획기적 발전 과업과 방도 제시의 적절성 높이 평가

- * “경제건설의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타산에 기초한 명안 중의 명안”

- 정면돌파전 수행 및 당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인민경제 선행부문별 과제 제시
 - (금속공업부문) △주체철 생산 토대의 과학기술적 완비 및 생산 증대 △김책 제철소와 황해제철소에서의 대형산소분리기 설치공사 조기 완공 등 금속공업 부문의 생산토대 강화
 - (화학공업부문) △순천린비료공장처럼 중요 화학공업기지 건설 및 개건대상 완공
 - (전력공업부문)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 및 높은 수준에서의 생산 정상화 △화력발전 능력 최대화 및 발전설비들의 원성능 회복을 위한 기술혁신운동 전개 △전반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의 효과적인 전력 이용
 - (석탄공업부문) △전력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석탄 증산 대책 강구 △석탄 증산을 위한 탄광들의 능력확장 공사 분발 및 고속도굴진운동 전개 △모든 탄광들에서 굴진선행의 원칙 견지와 설비들의 만가동 보장 및 석탄 생산계획 어김없이 수행
 - (철도운수부문) △경제 활성화에서의 철도수송의 중요성 자각 및 무조건 과업 관철 투쟁 전개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 확립 △수송조직과 지휘를 잘하여 물자수송의 책임적 보장
 - 상기한 5가지 인민경제 선행부문 중 금속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을 “경제 강국건설의 쌍기둥”으로 규정, 타 부문과 차별화하고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의한 생산 정상화 및 국산화의 시급성 반영
-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의 생산 정상화를 위한 일군들의 과업 제시
 - (내각 등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군들) △당 정책에 철저히 입각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 분발을 위한 작전과 계획 및 경제사업 조직 △선행부문 간 상호 생산연계성 강화 및 협동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심 경주 △전망성있는 경제조직사업을 통한 비약과 혁신 추동
 - (인민경제 선행부문 일군들) △대중 속에서 문제 해결 △선제적인 타산과 대책 수립을 통한 생산과 수송의 원활한 공정 작동

-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각급 당 조직들) △정면돌파전의 시대적 요구와 책임감 각인을 위한 사상사업 전개 △화선식 선전선동 전개 △인민경제 선행부문 적극 지원 및 선행부문에 대한 보장사업을 위한 조직정치사업 전개
- “부문 간 상호 연계성 강화” 및 “생산과 수송의 원활한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계획경제의 핵심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자 시장경제 원리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방증

③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5.9)

○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4주년 기념 사설

- 북한은 2016년 5월 9일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정은 당 제1 비서를 당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김정은의 위상과 권능 강화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수령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이 대를이어 굳건히 고수되게 되었으며 주체혁명의 향도적 역량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정면돌파전사상을 기존의 “혁명적 노선”에서 “과학적인 투쟁방침”으로 하향화

-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사상은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혁명의 새로운 양양기를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투쟁방침**”
- (당의 전투력과 영도력 비상히 강화) △인민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신뢰받는 당 건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김정은의 당건설과 당활동 진행 △김일성·김정일 교시의 당 강령화 △전당의 학습열풍 총만 및 사람과의 사업으로 당 사업 전환 △인민대중제일주의 철저 구현 △영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
 - *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2016.12.25.),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2017.12.22.~23), 그리고 수차례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 개최를 통해 당의 영도적 역할 제고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국가와 인민의 자력갱생 정신 투철화) △어려운 조건 하에서 자력갱생대진군을 통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자력갱생 실천투쟁의 유효성 체득 △순천린비료공장 완공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사상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거세찬 분출
- (우리식 사회주의 특유의 우월성 부각)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주체의 인민관이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 응축이며 혁명적 당풍이자 국풍 △당활동과 국가활동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
-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과시 사례로 인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문제를 정치국회의의 첫 의제로 삼은 것과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제시

○ 사회주의강국 건설 위업 달성을 위한 몇 가지 임무 제시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 △당의 유일적 영도 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 확립 △당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정신에 입각하여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 무조건 수행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요소들과의 날카로운 투쟁
- (정면돌파전 총매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의 자력갱생, 자급자족 실천 △노동계급은 선두에서 당의 정면돌파전사상과 전략, 실천강령 수행
- (당원들의 당정책 절대 신봉) △당원들은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의 선봉투사 되기 △타인보다 높은 실적 내기 및 대중의 친근한 벗이 되기 위한 노력 경주
- (당조직들의 책임과 역할 다하기)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사상교양사업 소홀현상 척결 △행정일군들을 당적으로 지원 등

④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어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5.11)

○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식량증산을 독려하는 사설

- 매년 이 시점에 모내기를 독려하는 사설을 게재하는 관행 견지
- 금년은 농업을 정면돌파전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한 만큼 각별한 의미

- *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을 지켜선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더 높은 다수확성과를 안아올 일념으로 끊어 번지고 있다”

○ 정면돌파전의 성공여부가 농업전선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이미 다수확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

- 최근 몇 년간 전례없는 과학농사열풍으로 다수확성과를 이룩하고, 특히 지난 해 최고수확년도 수준 돌파
- 이러한 다수확성과는 전력, 석탄, 금속, 화학공업 등 인민경제 전반에 활력이 되기 때문에 농업전선을 정면돌파전의 주타격방향으로 설정
- 이를 통해 인민경제 선행부분 간 상호 연계성 강화만이 아니라 산업과 농업 사이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

○ 농업생산성 증대는 올해 당창건 75주년을 맞이하여 당에게 바치는 “로력적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 사업으로 규정

- *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나오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 식량 증산에 대한 기여도를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의 판단 기준으로 정하는 등 먹는 문제 해결의 정치화를 통해 식량 증산 독려
-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2012년 약속을 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하여 식량 증산을 통해 지켜야 하는 정치적 부담 반영

○ 모내기에 필요한 3가지 보장 대상 제시

- (適期 보장) △철저한 모내기 일정계획 관리 △충실한 모 공급 보장 대책 면밀히 강구
- (질적 보장)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정확히 보장 △모 심는 깊이 정확한 보장 및 모판흙이 붙은 채 모내기하기 △철저한 모판 관리와 “그날 뜬 모는 그날 심기” 원칙 철저히 준수

- (농기계들의 만가동 보장) △예비 부속품 충분히 확보 △이동수리활동 활발히 전개
- 낡고 고장난 모내기 기계의 문제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남북 농업협력 시 정책적 시사점으로 활용
- * “특히 모내는기계수리정비를 정상적으로 깎지게 하여 정성껏 자래운 모가 상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며 반복작업으로 인한 로력랑비를 없애야 한다”

○ 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 주문

- (농업성 일군들) △상기 3가지 보장 대상 집행에 대한 관심 경주 △나타난 편향을 적시에 바로잡기
- (도·시·군 농업지도기관 일군들) △모내기 현장에서 직접 지도 △제기되는 문제 즉시 해결
- (협동농장 일군들) △날자별, 포전계획별 어김없는 모내기 수행 및 김매기 공정까지 염두에 둔 사업 전개 △공정하고 정확한 ‘로력일평가사업’을 통한 근로 의욕 제고

○ 농사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하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노력적·물질적 지원 촉구

- (산업부문) △필요한 전력 무조건 보장 △화학비료와 농기계 부속품 등 영농 물자 적시 제공 △영농물자 우선 수송
- (방역부문) △농촌지원 기간 방역사업에서의 사소한 편향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 △농촌지원 노력을 농사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
- 코로나-19 방역사업으로 인한 모내기 노력동원의 차질을 우려, 지난 식수절(3.2)부터 “합리적 노력동원”의 필요성 강조
- 전인민적 지원 및 당과 근로단체들의 역할 제고 독려

⑤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5.14)

- 순천린비료공장 완공을 군민일치의 성과로 부각하면서 군민대단결을 통한 경제 강국 건설 추동

- 군민대단결을 “자랑스러운 국풍”이자 “사회주의 건설의 원동력”으로 정의하는 가운데 지난 해 군민대단결의 성과로 삼지연시꾸리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건설사업 평가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사업을 배제한 것으로 볼 때, 동 사업이 중요 대상건설 사업 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추정
- 군민대단결을 통해 당이 제시한 올해 목표 달성을 주문하면서 군민대단결의 현재적 의미 설명
- 우리식 사회주의의 보검이자 주체조선의 자랑이며 불가항력으로 설명
 - * “혁명의 양대 기둥인 인민과 군대의 동지적 단결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보검이자 피와 정을 나누는 혈연관계”
 - 과거 2000년대 군민대단결은 선군노선에 따라 ‘원군(援軍)’에 방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노선에 따라 ‘원민(援民)’에 방점을 두는 경향
- 군민대단결 강화 및 위력 발양을 위한 몇 가지 과제 제시
-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차원에서 정면돌파전 수행) △정면돌파전은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정치사업 △당중앙의 존엄사수전, 권위보위전이라는 자각 필요 △모든 문제를 당중앙결사옹위 각도에서 보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튼튼히 확립하는 자세 견지
 - (인민군대의 정면돌파전 진격로 열기) △인민군대의 선구자적 역할을 높여 당면한 난국 타개 △당의 웅대한 대건설 구상을 실천해 나가는 기수이자 돌격대 △순천린비료공장 완공 정신으로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 완수 △국가의 기둥, 인민의 총복, 인민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역할 수행
 -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 △육·해·공 철벽 방어와 부단한 전투력 강화
 - 경제문제 관련 언급과 달리, 군사적 담보와 관련한 언급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및 방안 언급 자제

- (전체 인민의 인민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본받기) △영도자를 철저히 받드는 인민군대의 자세와 입장 본받기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정신, 자력갱생정신, 헌신정신 본받기 △국방과학부문 종사자들의 창조정신 본받기 △‘군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기념비적 창조물 세우기
- (당 조직들의 군민대단결 위력 강화 역할 수행)

⑥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5.18)

- 순천린비료공장 준공(5.1)을 예시로 하여 당이 제시한 정책들에 대한 결사관철을 촉구하는 사설
 - 당 창건 75주년 행사가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결사관철을 독려할 필요성 고려
 - * “올해는 당창건 75돛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온 나라 전체인민이 어머니당의 생일을 가장 의의 깊고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 전진하여야 할 때이다”
 - <당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틀어쥐고나가자!>라는 새로운 구호 제시
- 당의 노선과 정책 결사관철을 위한 몇가지 과제 제시
 - (당정책의 진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당성 각인) △당정책에 철저히 입각한 문제 인식과 과학적 혁신을 통한 사업 방법 강구 △자기 집안일처럼 당정책을 명확히 파악
 - (무조건 관철 입장 확고히 견지) △당정책 관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중도반단 없는 관철 △소방대식 일본새, 오분열도식 사업방식 척결
 - (경제전선에서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정신 발휘)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생산 정상화 △수입병과 남에 대한 의존심 불식 △예비와 가능성 최대 동원 및 증산절약과 재자원화사업 전개 △생산·연구·개발단위와의 긴밀한 협동 하에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 실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부족한 문제 해결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 난관 해결 및 현존하는 노력과 설비, 자재에 의거한 무조건 수행

-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자원 부족 현실 속에서 자력에 의거한 무조건 과업 수행 촉구로 주민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 가능성
-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결사관철 기수 역할 수행) △당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기 일군들을 본받아 당정책 무조건 관철 투쟁 추진 △전체 당원들은 이신작칙의 실천적 모범 보이기
- ‘수령의 당’ 확립을 기준으로 1970년대를 당의 기초축성기로 설정
- (당조직들의 역할 강화)

⑦ 청년들을 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 시키자(5.22)

○ 정면돌파전 수행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촉구하는 사설

- 청년들의 사상적 해이 현실을 우려하면서 사상교양 강화를 통해 이를 다잡기 위한 절박함 시사
 - * “청년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당과 혁명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흥망 성쇠가 달려있다”
-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개인주의가 강한 고난의 행군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침투의 어려움 반영
 - * “현실은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전위투사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정면돌파전 수행에서 부족한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과 기여 촉구 필요성 인식
 - * “청년들이 정면돌파전의 앞장에서 용기백배, 신심 드높이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 *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난관을 맞받아 뚫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하는 오늘의 혁명적진군에서도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할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우리 청년들이다”

- 소홀한 청년교양사업이 구 사회주의권 붕괴의 단초였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제국주의자들의 첫 번째 과녁이 혁명의 시련을 겪지 않은 청년들이라고 경종을 울리면서 사상교양의 중요성 역설
 - * “청년들이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풍조에 물젖으면 일하기 싫어하고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며 나아가서 당과 혁명, 조국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이 세계사회주의운동사가 새겨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 * “적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는 현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청년교양사업을 통해 만들고 싶은 몇 가지 청년상 제시
 -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수분자) △자력자강의 투사로 만들기 위한 당의 노선과 정책 및 백두의 혁명정신 함양 △청년동맹의 사상교양사업 적극 강화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답사운동 적극 전개
 - “오직 당과 수령만을 알고 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하며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는 참된 혁명가로 키우기”, “청년들이 잡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실시”를 강조하고 있어 청년들의 심각한 사상적 해이의 단면을 노출
 - (부강번영 투쟁을 위한 애국자) △가사보다 국사 중시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은덕 갚기 △리수복 영웅 따라배우기
 - * 북한은 리수복이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강원도 금강군의 1211고지 전투에서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 전사, 1952년 4월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로 선전
 - (새 문화 창조의 선구자) △언어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 확고히 고수 △제국주의 사상문화책동에 대한 각성과 불건전하고 이색적 생활양식 척결 △혁명선배 존대, 웃사람 존경, 집단의 단합과 가정의 화목 도모 △사회공중도덕과 생활질서 지키기
- 청년에 맞는 몇 가지 청년교양사업의 방법 제시
 - (각급 청년동맹조직들) △청년맛이 나면서도 실속 있게 전개 △건수 채우기식이나 판박이식 사업방식 제거 △청년세대의 심리적 특성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전개 △청년들의 심금과 열정 자극

- (청년동맹) △각급 동맹조직들의 조직성과 규율성, 단결력과 전투력 제고 △혁명적 사업체계와 규율 철저 확립 △청년동맹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 강화
-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정책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 심화 △당적 지도의 본보기 창조 및 일반화 △청년동맹 일군들에 대한 책임 교양과 사업조건 보장

⑧ 내적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건설대진군을 다그치자(5.25)

○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부예비 등 잠재력 총동원과 자력갱생을 촉구하는 사설

* “우리가 내적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더욱더 힘있게 추진되게 된다”

- 정면돌파전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자재 공급의 어려움 인정

* “정면돌파전이 심화됨에 따라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더 많은 원료와 자재, 설비를 요구하고 있다. 혁명 앞에 시련이 많을수록 우리는 용기백배하여 전진하여야 하며 모든 난관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과감히 뚫고나가야 한다”

- “짧은 시간에 현대화된 공장을 일떠세운”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의 모범을 따라 배워 내적잠재력 총동원 및 철야전 전개 독려

○ 자체의 잠재력 총동원을 위한 몇 가지 과제 제시

- (모든 예비와 가능성 최대 동원) △자력갱생정신 신념화 △천리마정신과 열정으로 내부예비 총동원을 통한 난관 극복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생산활성화의 활로 개척 △나라에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애국심 발휘

- (재자원화 사업 역점) △재자원화법의 요구 철저히 구현 △정확한 폐기물과 생활오수량 파악 및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는 재자원발전전략과 재자원화 계획 수립 △철저한 폐기물 회수, 분리수거, 재활용 사업 실시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는 재처리기술공정과 설비 구축 및 선진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현대화와 정상 가동화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극적 수매사업 전개

- (절약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노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생산공정으로의 전환
△질 제고를 통해 재생산, 재시공으로 인한 낭비 제거 △절약사업에 대한
승고한 공민적 자각
- (당조직들의 역할 강화) △잠재력 총동원을 위한 조직정치사업 강화 △모범단
위의 경험 일반화 적극 추진 △위만 쳐다보거나 조건이 보장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현상과의 투쟁 전개

3

개별 사설 분석

6월

① 정면돌파전에 박차를 가하여 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6.4)

-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면돌파전의 성과를 독려하는 사설
 - * “앞으로 당창건 75돐까지는 몇 달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우리가 당이 내세운 목표들을 빛나게 실현하여 당창건기념일을 가장 성대하고 의의 깊게 맞이하자면 더욱더 분발하여야 한다”
 - 정면돌파전 개시 6개월째가 되는 6월 첫 번째 사설의 성격에 맞게 올해 핵심 슬로건 들인 ‘정면돌파전’과 ‘당창건 75돐’을 포함하는 주제 선정
 - 당창건 75주년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김정은 정권의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면돌파전(1차년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상황 반영
 - * “당창건 75돐이 되는 경사스러운 올해에 정면돌파전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양기를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 “준엄한 난국” 하에서 연초부터 정면돌파전에 매진한 결과,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순천린비료공장과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 완공을 성과로 특별 거론
- 현재 주어진 여건의 열악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자력갱생의 헌신 촉구
 - * “조건과 환경이 그 어느때보다 불리한 속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충성심과 애국의 열망이 안아온 결실이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민이 있어 우리 당의 위업이 순간의 침체와 담보도 모르고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 “10월의 경축광장에서 떳떳함을 자부”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 제시
 - (실속있는 중간총화와 치밀한 다음 단계 계획 수립) △정면돌파전 시작 전에 세운 결의목표에 대한 실천 여부 평가와 원인 진단 및 적극적 대책 마련 △다음 단계 과업 관철을 위한 월별, 주별, 일별계획 수립 및 조건과 가능성 최대한 이용과 철저한 집행
 - (과학기술과 증산절약을 기본으로 총진군속도 제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한 사업방식 △과학기술자들은 현실적 문제 해결 철저히 지향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전개로 발명과 창의적 고안 도출 △단위별 자체 과학인재 육성 및 기술자, 기능공과의 사업 중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증산돌격전 전개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정신 발휘 △경공업부문과 지방공업부문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사업 박차 △전사회적 절약 사업 추진 △재자원화사업 추진 △선질후량원칙 하에 질제고 사업 추진 △생산과 기술에서 날림식, 양장쟁이식 사업태도 철저히 극복
 - (당일군들의 책임 완수 및 당조직의 역할 강화)

② 소년단원들은 주체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이다(6.6)

- 소년단 창립 74주년(1946.6.6) 기념사설
- 김일성과 김정일의 소년단 사업을 높이 평가한데 이어 김정은의 후대사랑·미래 사랑 업적 자랑
 - 소년단 창립 66주년 기념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2012.6.6.)와 소년단 제8차 대회(2017.6.6)에 직접 참석한 사실을 특별히 거론
- 소년단 육성을 위한 몇 가지 과제 제시
 -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 △항일아동단원(김기송·김금순)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따라배우고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참관사업에 적극 참가할 것을 주문
 -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 육성) △사회주의건설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

지식 습득 노력 전개 △소년단 조직생활에 성실한 참가와 맡은 일 어김없이 수행
△선생님과 어른에 대한 예절과 존경 및 사회질서와 공중도덕 준수 △꾸준한
체육활동으로 한 가지 이상의 체육기술 보유 △여러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
하기 운동 활발히 전개

- (소년단원 교양육성 진력) △교원들은 세계적 안목과 산지식 가르치기 △소년단
조직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청소년시절 따라배우기 운동과 5대 교양사업
실시 △청년동맹은 소년단 사업에 대한 지도를 눈높이에 맞게 진행

③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6.10)

○ 6월 7일 개최한 7기 13차 정치국회의 결정사항 이행을 독려하는 사설

- 동 회의에서는 화학공업 발전과 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 관련 의제 논의
- 화학공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문제와 ‘카리비료공업’
창설 문제를 논의하고, 평양시민 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주택문제 등 제반 현안 논의
- 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 문제를 의제로 다룬 것은 당면한 경제난의 정도와
평양 중심의 국가운영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

* “이번에 소집된 정치국회의는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

○ 당면한 난관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수행해야 할 투쟁과업이 방대하다는
점을 이번 정치국회의의 소집 배경으로 설명

- 지금까지 정면돌파전의 성과가 눈부시다거나 괄목할만하다고 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소중”하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평가, 제재와 코로나-19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

* “이 나날(지난 6개월) 이룩된 성과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이 자랑스럽고 소중하지만 앞으로
수행해야 할 투쟁과업은 참으로 방대하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부닥친 난관도 만만치 않다. 여기로부터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소집하
였으며 현정세에 대처한 경제발전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 이번 회의의 의의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은 “역사적인 회의”로 평가
 - 지금까지 수행해온 정면돌파전에 “비약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투쟁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면돌파전의 중간평가회의로써의 의미 부여
- 향후 정면돌파전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기존의 인민경제 선행부문 중시에서 화학공업부문 선행으로 조정한 것으로 추정
 - (화학공업 발전 중시) △화학공업을 인민경제의 주타격전선으로 설정 △화학공업이 발전해야 외적요인과 무관하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가능 △순천린비료공장 완공의 정신과 기백으로 화학공업 전반의 주체화와 현대화 실현 △세계 제일의 첨단형 종합화학공업기지 창설 △비료생산능력 증대로 국가의 존엄 수호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과 새로운 화학공업분야 개척 △국내원료 및 자재를 기본으로 에너지절약형, 노력절약형, 자원절약형, 기술집약형, 개발창조형 화학제품 생산체계 구축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카리비료공업 창설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 △탄소하나화학공업에 필요한 촉매개발 적극 추진 △화학공업분야의 인재개발사업 착실히 진행 △화학공업발전에 대한 **금속, 석탄, 전력, 철도운수부문 등 유관부문에서의 원료, 자재, 동력 우선 보장**
 - (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사업 박차) △평양시민들의 생활향상은 선대수령들의 유훈 관철을 위한 정치사업 △살림집건설 등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한 국가적 대책 강구 △평양시당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 평양 중심 국가 운영 실태 및 평양과 지방 간 지역차별화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 다수 등장
 - * “평양은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혁명의 수도이며 나라의 얼굴이다. 평양시를 웅장하고 아름답게 일신 시킬 뿐 아니라 수도시민들의 생활향상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그것이 료원의 불길처럼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올라 전국의 면모가 달라지고 인민생활향상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
 - * “수도시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꽃 피우는 길”
 - * “당중앙이 제일 관심하고 걱정하는 수도시민생활문제”

-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 제고)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면서 눈가림식, 요령주의적 사업 태도와 당정책 집행에 대한 무책임 척결 △화학공업발전 사업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추동하기 위한 사상교양 전개 △경직과 도식, 침체와 부진을 배격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의거하여 자기 지역,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인민들과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에서의 혁명전 전환

④ 련속공격전으로 자력부강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6.16)

- 지난 6개월 간의 정면돌파전 중간 결산 및 당 창건 75주년을 위한 성과 도출을 촉구하는 사설
- 지난 6개월 동안 내적동력 강화를 위한 정면돌파전의 성과 나열
 - 순천린비료공장 완공과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완공으로 농업전선에서의 알곡생산 증대를 위한 토대 마련
 -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와 평양종합병원, 단천발전소 건설 등
 - 석탄과 전력부문에서의 생산적 양양 등
 - 금속공업부문의 성과는 제외
- 당 창건 75주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도전과 장애 및 방대한 투쟁과업이라는 이중고와 조급성 시현
 - * “당창건 75돐까지는 몇 달 남지 않았다. 자립, 자력의 기치높이 용진해나가는 우리 앞에는 의연히 무시할 수 없는 도전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으며 투쟁과업도 방대하다”
- 당 창건 75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전인민적 결사전 전개를 위한 몇 가지 과제 제시
 - (백두의 혁명정신 견지) △백두의 공격정신 철저 구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대로 혁명적, 전투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기
 - (자력갱생의 승전포성 고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으로 당정책 결사관철 △7기 13차 정치국회의 결정에 의거한 화학공업 우선(선행)을 통한 경제발전 추동 △금속, 석탄, 전력부문에서는 생산 잠재력 최대한 동원·이용

△건설부문에서는 최상의 수준에서 중요 대상건설 완공 △경공업부문과 지방 공업부문에서는 내부예비 적극 탐구·동원하고 질 좋은 소비품 증산 △농업부문에서는 과학농사열풍, 다수확운동 적극 전개

- (당 일군들의 역할 제고) △당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근본적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자재나 원료, 설비 부족보다 더 절박 △자기 지역,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인민들과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에 깊은 관심 경주

○ 당중앙위원회 7기 13차 정치국회의에서 화학공업부문 우선(선행) 노선으로 조정 하였음을 재확인

-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 결정한대로 화학공업부문이 먼저 들고일어나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해나가야 한다. 금속, 석탄,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

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6.19)

○ 김정일의 당 사업 개시 56주년 기념사설

- 김정일은 1964년 초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동년 6월 19일 부터 중앙당 지도원으로 당 사업 시작
-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매년 6월 19일 기념사설 보도 관행 유지

○ 김정일의 당 사업 개시 덕분에 노동당이 ‘혁명적 당’, ‘어머니 당’, ‘불패의 당’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일의 당 건설 업적 소개

- (김일성의 당으로 강화·발전) △수령중심론의 견지에서 수령의 당 건설 지침 마련 △김일성주의 정식화 및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유일사상체계) △수령 중심의 혁명적 사업체계 확립(유일영도체계)
- 김정은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 강령으로 내세운 것은 김정일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의 혁명적 계승이자 새로운 단계로의 심화·발전이며, 당사업 체계와 사업방법도 김정일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

- 하지만 김정은은 김정일이 만든 ‘당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을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으로 변경하여 그 안에 있던 ‘수령’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김정일의 군 영도체계 중시와 달리 당 영도체계를 중시하는 경향
-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이룬 당 건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어머니 당 건설의 숭고한 경지 개척
 -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 그 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어머니당건설의 숭고한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 김정일을 ‘어머니 당 건설자’가 아니라 ‘경지 개척자’로 묘사한 것은 어머니 당 건설 업적을 김정은에게 부여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며, 실제로 김정은 시대 들어 어머니 당을 지속적으로 강조
-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 △강한 조직력과 불패의 전투력 강화 △당건설과 활동에 주체의 영도원칙과 방법 구현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 심화 △당중앙에서 말단 기층조직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 확립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보고하고 결론을 받아 처리하는 기강 수립
- 김정은의 당 건설 업적의 핵심 사례로 “당회의 정상적 소집”을 꼽고 있어 김정일 시기의 당운영이 비정상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평가
 -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를 비롯한 당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도록 하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시어 당의 대중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다”

○ 김정일 따라배우기를 통한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몇 가지 과제 제시

-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발전) △당 건설과 활동을 철저히 김일성-김정일주의 요구대로 진행 △당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 심화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기풍 확립 △영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공격형·실력가형 일군이자 인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되기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충직하게 받들기) △김정은 결사옹위 △김정은 중심으로 전당의 통일과 단결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하에 전당과 온 사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 확립 △기층당 조직들의 역할 제고

- (정면돌파전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제고)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 공고화 및 인민생활향상에서의 큰 진전에 화력 집중 △화학공업 발전에의 진력 및 평양시민들의 생활조건 마련 사업 강력 전개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 부문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에서의 생산적 양양을 위한 대중 추동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 당조직들은 각각 인민소비품생산 성과와 다수확 성과를 위한 조직정치 사업 심화
- 당이 수령들을 모시듯 인민을 받들고 있다고 하여 수령과 인민에 대한 당의 태도를 대칭관계로 설정
 - *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고 있다”
 -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는 접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김정은 시대들어 수령의 위상이 과거 신적 반열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변화한 것과 같은 맥락
 - 김정은은 2019년 3월 개최한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의 위상을 “수령은 인간과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위대한 인간이고 숭고한 뜻과 정으로 인민을 이끄는 위대한 동지”로 규정

⑥ 증산절약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자(6.22)

- 정면돌파전 수행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산절약을 독려하는 사설
 - *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군중적으로 증산과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자!>는 애국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재부를 극력 아껴쓰며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이 창조하고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정면돌파전이 진행될수록 원료와 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데 공급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산절약을 “절실한 문제”로 규정하고 교육책으로서 증산절약 촉구
 - * “증산절약운동은 오늘날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지금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설비와 자재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증산절약운동 전개를 위한 몇가지 과제 제시

- (확고한 주인의식과 열렬한 애국심 견지) △증산절약은 나라의 융성번영 사업 이자 자신의 행복 사업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근로자 되기 △내부예비 최대 탐구·동원 및 유희자재수매 등 재자원화 사업 적극 추진
-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 제고) △질을 보장하지 못하면 재생산·재시공으로 노력, 자재, 자금낭비 초래 △질 제고 우선, 양적지표 보장 방향에서 경제조직사업 전개 △원단위 소비기준을 엄격히 따지고 수익성 보장에 관심 경주 △날림 토목공사식, 야장쟁이식 사업태도 척결
 - * “인민경제계획작성과 수행에서 질제고계획을 우선시하고 질적지표에 대한 상별적용을 정확히 하며 모든 경쟁에서 량과 속도보다 질을 앞세우고 계획수행정형을 량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평가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 질과 양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신 설비와 필요한 물자공급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예비 동원 및 절약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 의문
- 속도보다 질적 보장 우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속도전’ 중시노선과 모순되며,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속도전’을 여전히 강조
- (증산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기술혁신) △과학기술에 의거한 절약형 공장 개건 △최적화, 최량화 실현 △노력과 원가 최대한 절약 △활발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통한 적은 자재와 자금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 정상화 실현 △과학기술자들의 원료, 연료, 동력, 자재 절약 및 효과적 이용을 위한 적극적 문제 해결
 - * 기술혁신에 의거한 증산절약의 모범 단위 소개: △평양무궤도전차공장(노력절약형-에너지 절약형), 원산구두공장(원가절약형)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⑦ 조국수호정신은 주체조선의 뉘이며 필승의 무기이다(6.25)

- ‘조국해방전쟁’(6.25전쟁) 발발 70주년 계기 ‘전승’과 ‘조국수호정신’을 기념하는 가운데 정면돌파전에서도 ‘조국수호정신’을 의거해 난관 돌파를 촉구하는 사설

- * “지금 온 나라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우리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힘차게 열어 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의 현재적 의의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녀이며 필승의 무기 △어떤 물리적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강의 힘으로 평가
 - 1950년대나 지금이나 제국주의세력들의 압살책동 야망은 절대 불변
- 새 세대들의 조국수호정신 계승을 특별히 주문
 - 새 세대들이 조국수호정신을 교과서나 ‘위훈담’으로만이 아니라 ‘넋과 피줄기’로 본받아야 조국과 민족의 안전이 굳건히 담보된다고 역설
 - 북한은 새 세대들을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사상적 문제를 우려해 왔으므로 특별히 조국수호정신과 새 세대를 연계하여 언급
- 조국수호정신에 의거해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과제 제시
 - (당의 영도적 권위 결사옹위)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의 기본핵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 청년들은 전화의 결사관철 용사들처럼 당이 부여한 임무를 무조건 수행 △당중앙 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
 - 원래 결사옹위는 수령과 결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중앙과 연계한 것은 이례적임. 1970년대 당중앙은 후계자(김정일)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중앙’은 수령이나 후계자 개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중앙 위원회라는 집단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함. 6.25 전쟁과 관련한 대목에서 굳이 개인을 가리키는 결사옹위를 표현하자면 ‘최고사령관 결사옹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함. 2000년대 초반에도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논쟁이 있었으나 당시 북한은 “혁명의 수뇌부는 김정일 동지이시다”라고 하여 논쟁을 정리
 -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진격로 개척) △조국수호정신은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무한한 헌신성의 발현 △정면돌파전에서 1950년대 전시공로자들의 자력갱생과 견인불발 따라배우기 △자기 힘을 믿고 예비와 가능성 총동원을 통해 증산투쟁 전개 △화학공업부문 선행으로 경제발전 추동

- “정전은 평화가 아니”므로 긴장태세 유지를 위한 단위별 과제 제시
 - (군대)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 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용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전투정치훈련 전개 △전쟁시기의 경험에 기반한 철저한 싸움 준비 △만반의 전투동원태세 구축
 - ‘싸움 준비’, ‘전투동원태세’와 같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표현을 쓰고 있으나. 전후의 맥락을 보면 공격적 의미보다는 수비적 의미에 방점
 - * “적들은 우리가 마음의 탕개를 늦추는 그 순간을 노림”, “적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계급적 원썩”들과는 맞서 싸워 무조건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와 멸적의 의지 고양 △정면돌파전은 적대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이며 모든 곳에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 각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 전쟁 관련 교양거점에 대한 참관사업 정상적·계획적 진행 △전쟁노병들과의 상봉모임 조직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 존대 △새 세대들에 대한 혁명의식, 계급의식, 반제의식 교양사업 전개

//끝//